

대학원에서의 지난 2년은 저에게 있어 앞으로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들어오  
으로써 정말 여러 의미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 대한 아쉬움은 약간 있으나 대학원에 온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며,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오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학부 4학년 때였는데, 당시 대학원 진학 권유를 받고 꽤  
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웹 개발 위주로 공부 및 취업을 알아보던 저로써는 보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괜한 기우였습니다. 대학원을 통해 우물 안 개구리에서  
우물 밖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화정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학 이후 여러 분야를  
경험해보며 본인에게 가장 알맞으면서도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에 대해 교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시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많은 지원을 해주십니다. 가령  
맥북, 그램, 대형 모니터 등과 같은 장비에 대한 지원이나 전혀 부족하지 않은 급여, 자유로운 출  
퇴근 등 가히 대한민국 대학원들 중 최고의 복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부터 본인이 원하  
는 연구 분야를 찾아내면 됩니다.

개인적인 연구 이외에도 교수님께서 개개인별로 과제를 할당해주십니다. 전혀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며, 저는 오히려 과제가 공부에 도움이 매우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제 자체의 해결 과  
정으로부터 얻게 되는 학문적인 지식 및 기술도 중요하지만, 협동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부분  
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과제를 통해 여러 지식이 늘고 팀원과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이 장래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초반에 연구 주제를 제대로 잡지 못하였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온 뒤 블록체인, 인공지능,  
암호 구현, 리버싱 등의 분야를 다뤄보았지만 왠지 전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프로그래밍 위주의 개발이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를 캐치하셔서, 저에  
게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는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추천해주셨고, 이것은 이제까지 방향하던 저  
에 정말 감사하게도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연구실에 처음 들어왔을 당시 공부하던 블록체  
인은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었었는데, 실제 개발을 하면서 다시금 공부해본 블록체인은 웹  
분야를 공부하다가 온 저에게는 정말 잘 맞았습니다. 덕분에 블록체인을 이용해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민 중이시라면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니 오셔서 본인의 연구 욕망을 불태운다면 서로에게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저에게 큰 도움 주신 교수님과 다른 학생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